

# 조경수 종묘 · 품종보호 workshop를 마치면서...



김 용 환 | 상근부회장  
(사)한국조경수협회

급변하는 사회 틀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새로운 정보와 전문지식 없이는 보다 희망찬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순천지부(김용주농장)



일본수출단지(붓순나무, 빗죽이용기재배)



조경수산업 학술 심포지엄

“오랜만에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금년 6월 1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우리협회 주최로 개최된 조경수산업 학술 심포지엄이 많은 분들의 호응과 관심 속에서 성황리 마무리되고 연이어 9월 19일 충남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국립산림품종센터에서 조경수 종묘 및 품종보호 workshop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에 적극지원하여 주신 하영제 산림청장님을 비롯하여 김태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원장님 및 직원 여러분과 귀중한 자료를 발표해 주신 전범권과장님, 김규식박사님, 김용울박사님, 권오웅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저로서 여러번 계획변경과 전문가분의 발표자료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여하신 조경수협회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열띤 토론이 앞으로 조경수산업의 밝은 내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 · 개정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제도와 농업유전자원법을 이해해 경쟁력 있는 조경수생산과 품질향상에 목적을 개최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틀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새로운 정보와 전문지식 없이는 보다 희망찬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회원 여러분

들께서 법규나 제도적인 내용이 다소 학술적인 용어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를 잘 경청하고 이해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협회에 정식으로 근무한지 불과 2년 채 되지 않지만 그 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회원사님의 여러 농장을 방문한 가운데 이제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신지식인 두 분을 찾아 이 자리에 소개코자 합니다. 저도 산림청에서 약 40년간 많은 업무를 취급하였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분야를 새로운 기술로 개척하신 분들입니다. 우선 한분은 전남 서부지부 김용주사장님의 단위당 양질의 철쭉묘 대량생산기술개발입니다. 우리 과학상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지식을 개척하였습니다.

아마 산림청 양묘사업요령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분은 제주지부 김승철사장입니다. 이분은 현재 일본에 조경수를 홀(배양토)과 함께 수출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일본인들의 얇은 언행을 일상 비난만 하고 있지만, 매년 대일무역 수출역조현상은 약300불 이상 적자 경제를 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일찍이 일본과 교류하면서 일본의 사회문화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 일본의 사찰이나 묘소 등에 분향 시 일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붓순나무, 빗쭈이, 사스레 피나무임을 알고 이를 착안하여 시험재배를 성공리에 마친 후 많은 물량의 대일 수출을 하고 있는 신지식인입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협회 집행부는 회장님을 정점으로 보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차원 높은 협회의 위상과 회원님의 권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 품종보호 워크샵

